

##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김 용 하\*

( )

임 성 은

( )

---

베이비붐 세대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63년 출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율과 출생아수 급증을 함께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뿐만 아니라 1974년까지 태어난 세대까지 포함하는 총인구의 34%(1,650만명)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인구 및 노동시장 분석에 보다 정확히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도 2010년대 혹은 2020년대라기보다는 2030년대 이후 2040년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대 혹은 2020년대에도 영향을 주지만 여성, 청년, 중고령층에 산재한 비경활인구가 부분적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40년대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부터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긴 세대로서 희생세대라기보다는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전으로부터 최대 수혜계층일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존재할 때 적극적인 재정균형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주요용어: 베이비붐 세대,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국민연금, 은퇴, 세대간 소득이전, 노동시장

---

\* 교신저자: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yhkim@kihasa.re.kr)

■ 투고일: 2011.4.30    ■ 수정일: 2011.6.20    ■ 게재확정일: 2011.6.23

## I. 서론

각 국가마다 베이비붐 세대를 규정하는 기준이나 규모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란 출생이수와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특정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거대 인구 코호트(Cohort)<sup>1)</sup>를 지칭한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지만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집중적으로 관심 받았고,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인구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문제는 1955~1963년에 출생한 코호트를 중심으로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주목받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 문제는 단순히 노인문제나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파급효과가 우리 사회 각 부문에 전달되기 때문에 인구구조적인 문제로서 접근을 해야 한다. 즉, 베이비붐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들이 지나가는 유소년기, 청장년기 내내 파장을 거세게 일으키는 일종의 인구 쓰나미와 같은 존재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인 1955년생은 2010년 현재 만 55세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은퇴연령이 55~57세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가 은퇴를 시작하거나 앞두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문제가 이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기된 것 자체는 때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사회에서 이들 세대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존재기간이 다른 국가보다 길기 때문이다. 즉,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이었던 연령층은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이나 지속되어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1949년)와 비교할 때 장기간 존재하였으므로 차별성이 부각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는 노령화 문제와는 다른 인구구조적인 문제이고, 그 대책도 단순한 고령사회 대책과는 구분되어 제기되어야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베이비붐 시기가 장기간 진행되고 이후 급격한 출산율 감소현상을 겪게 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기간별로 엄격히 해석될 필요가 있고,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크다.

베이비붐 세대는 생산요소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베이비붐 세대의 존재로 노동력의 공급량이 대폭 증가하였다가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1) ‘코호트’란 주로 같은 시기에 태어나 같은 경험을 하면서 자라난 연령집단을 의미한다.

생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세대의 이동에 따라 연령별로 상이한 소비구성이 상품 수요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연령별로 크게 다른 인구규모는 세대 간 이전의 부담과 수익에 영향을 주어 어떤 세대에게는 손해를, 어떤 세대에게는 이익을 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른바 ‘世代別 公正’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와 규모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한다. 소위 1차적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 2차적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74년생까지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결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에 따른 영향이 2010년대부터 초기 기간이 초점인지, 아니면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는 2030년대 말 이후부터 문제가 되는 지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과 관련하여 2010년대에 노동시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별 소득이전적 측면에서 손실 세대인지 아니면 이득 세대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낀 세대로서 희생 세대라는 선험적 판단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세 개의 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차례로 논증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논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여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파악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출산율과 출생아수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를 분석하고(2장). 다음으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이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간별로 분석하고(3장),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세대 간 소득이전을 공정성 측면에서 손익 분석한다(4장).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의 함의와 시사점을 정리한다(5장).

## II.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와 규모 문제

베이비붐 세대는 국제 공통의 통계적 기준으로 분류된 개념은 아니므로 국가마다 그 기준과 범위가 다르다<sup>2)</sup>.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베이비붐 세대 추이는 제2

2) 국가별 베이비붐 시기는 캐나다(1947~1966년), 국가별 베이비붐 시기는 캐나다(1947~1966년), 호주(1949~1965년), 뉴질랜드(1947~1965년), 프랑스(1946~1974년), 영국(1946~1974년), 핀란드

차 세계대전 이후 약 20여 년간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베이비부머’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Macunovich, 2000). Easterlin(1962)은 출생아수와 출생률의 변화에 따른 미국 베이비붐의 역사적인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베이비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반면, Bouvier(1980)는 베이비붐 시기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지만, 베이비붐 발생 기준을 출산율로만 설정할 경우,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1947년부터 1964년까지의 18년간이라고 규정하였다. 1946년의 합계출산율은 2.9로 동 기준에 의하면 제외되는 것이다. 미국의 인구학자인 Philip Morgan(2003)은 ‘전후(戰後) 출생아수의 급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출산율<sup>3)</sup>’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출산율은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인구센서스국(U.S Census Bureau)은 ‘베이비붐 세대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sup>4)</sup>로 간주하여 지속적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데, 동 시기의 합계출산율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up>5)</sup>.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1930년대 2.0, 1940~1944년은 2.5 였으나 1945년 이후 증가하여 1945~1949년 3.0, 1950~1954년 3.3, 1955~1959년 3.7, 1960~1964년 3.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1965~1969년 2.6, 1970~1974년 2.1, 1975~1979년 1.8로 감소하였다(U.S. National Vital Statistics System). 1946~1964년생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규모는 7,700만명으로 총인구의 30%에 달한다. 1946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시기로 전후(戰後) 세대를 대표한다.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로 인하여 2010년 이후 이들 세대의 총 인구수 및 비중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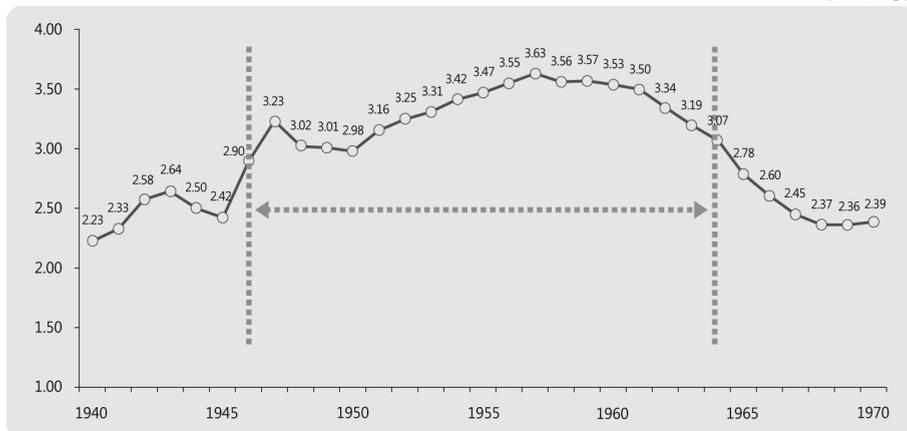
---

(1945~1950년), 독일(1955~1967년), 스웨덴(1946~1952년), 덴마크(1946~1950년), 네덜란드(1946~1972년), 아일랜드(1946~1982년), 헝가리(1946~1957년), 아이슬란드(1946~1969년) 등이다(Wikipedia).

- 3) ‘it is clear that birth rates, not generation size, have been the key factor in the postwar upsurge of births’(Morgan, 2003: 73).
- 4) ‘the population born between 1946 and 1964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Baby Boom generation’(U.S. Census Bureau).
- 5)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1949~1965년생으로 동 시기의 합계출산율은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은 1965년 합계출산율이 1946년의 2.98로 낮아졌기 때문에 동 시기로 베이비붐 시기가 종료되었다고 설명함(Jackson, 2001). 뉴질랜드의 경우, 베이비붐 시기에 3.0~4.0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Pool, 2007).

그림 1.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기간

(단위: 명)



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 기준으로 함.  
 자료: CDC/NCHS, National Vital Statistics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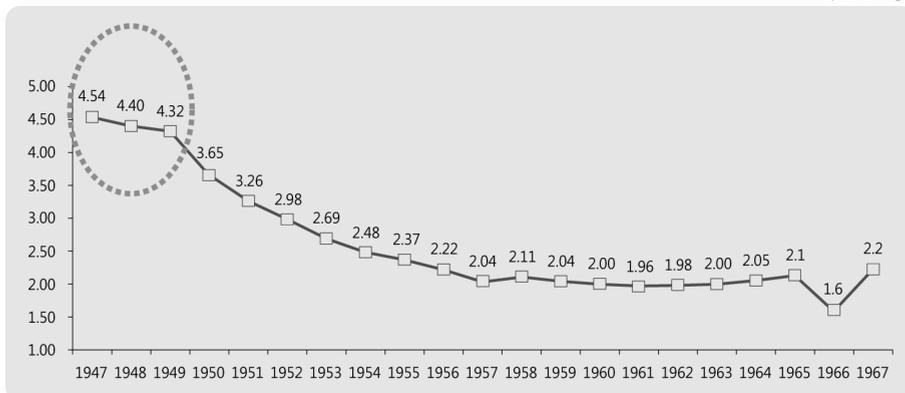
반면, 일본의 경우 1947~1951년까지 3.0 이상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베이비붐 세대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1949년에 태어난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단카이(團塊) 세대<sup>6)</sup>라고 불리며, 동 기간의 출생자 수가 806만명으로 총인구의 5%를 차지한다. 일본 단카이 세대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은 4.0 이상으로 메이지 유신 이래 가장 높은 출생률을 보였다(정후식, 2005). 따라서 이들 베이비부머는 총인구와 취업자 수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63년생까지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1955~1974년생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출산 붐이 시작된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 도입 이전 시기인 1963년까지 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5년부터는 출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그 흐름이 196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에 태어나 현재 생존하는 인구수는 716만명 정도이고, 우리나라 전체

6) 단카이 세대라는 용어는 사카이야 다이치의 소설 「단카이 세대」에서 비롯되었다.

그림 2.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기간

(단위: 명)



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 기준으로 함.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최대 인구집단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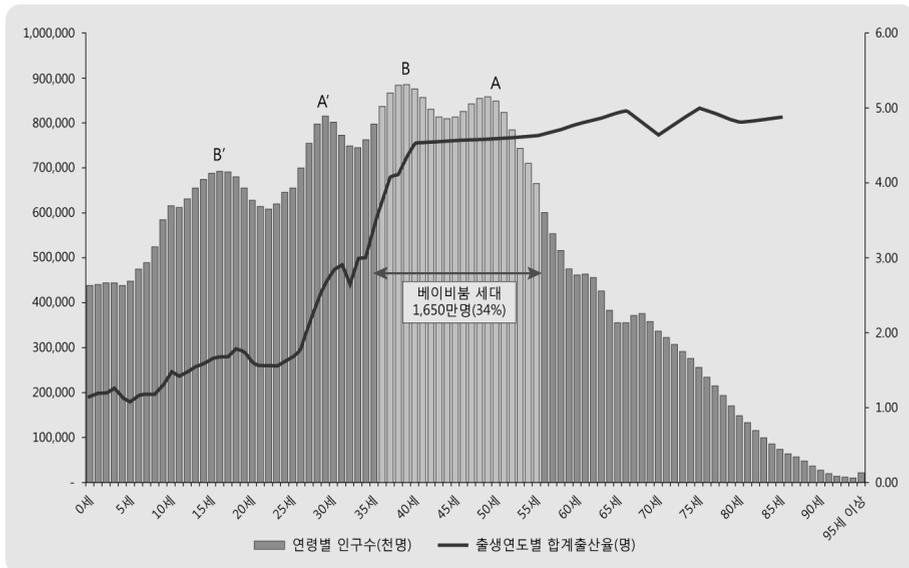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식의 정의는 근본적으로 근거가 약하다. 왜냐하면 1964년생부터 1967년생까지 출생아수가 감소는 하지만, 이 시기를 포함하여 1974년생까지 출생아수는 매년 80만명을 초과하였고 합계출산율도 3.0 이상이였다.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시기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정의한다면, 당연히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전부를 베이비붐 세대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측면에서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로 나누는 방법도 잘못된 것이다. 기존의 정의에 의하면 1964년생부터 1967년생은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1955~1974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로 간주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는 총인구의 34%인 1,650만명으로 20년간 장기간 지속된 거대 인구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와 관련하여 김태현(2010)은 출산율의 급등으로 출생아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현상을 베이비붐이라 할 경우,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출산율 급등이 1950년대 중반에 있었음에도 출생아수의 급증이 각각 1960년과 1971년에 2회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는 시기에 나타난 1971년의 출생아수는 1960년보다 많았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기간을 미국이나 일본 등과는 달리 출생아수가 급증한 두 시점(1960년과 1971년)을 중심으로 전·후 각 10년씩

총 20년간으로 정의하고, 이 기간에 태어난 코호트를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1955~1964년생을 전기 베이비붐 세대, 1965~1974년생을 후기 베이비붐 세대로 규정하였다. 김순옥(2010) 역시 인구구조상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0년대 중반 이후 20여년에 걸쳐 출생한 인구층으로 보다 넓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74년에 출생한 세대로 정의하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들 세대가 현재 두 개의 인구집단 봉우리(A, B)를 먼저 만들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다시 1980년대에 또다시 두 개의 인구집단 봉우리(A', B')를 만들어 총 4개의 인구 봉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1,65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쓰나미처럼 움직이면서 이들의 자녀 세대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적 특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추이(2010년 기준)



주: A: 1955~1963년생(1차 베이비붐 세대) B: 1968~1974년생(2차 베이비붐 세대)  
 A': 1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 B': 2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우리나라와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의 시차는 약 20여년이 된다<sup>7)</sup>. 그러나 일본의 경우 1947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되고, 우리나라는 1955년생부터로 시작되므로 시차는 8년간 정도 발생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이러한 의문이 베이비붐 세대의 지속기간의 차이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 즉, 일본은 단 3년이었던 반면에 한국은 20년이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시점의 차이가 8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상의 시차가 20여년으로 벌어진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의의 중요성이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과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빠르게 시작되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약 20여년간 장기간에 걸쳐 베이비붐 세대가 형성된 것과 달리, 일본은 3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베이비붐 세대가 형성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보다 베이비붐 세대 형성 시기는 다소 늦으나 20년이라는 세월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즉, 일본형 베이비붐 세대와 미국형 베이비붐 세대의 형성 및 그 파급효과는 단기와 장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정책대응 측면에서도 다르게 접근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보다는 미국의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보다 유용할 수 있다.

### Ⅲ. 베이비붐 세대 은퇴이동이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에 대한 문제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인 52.1%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77.8%, 고용률은 75.8%로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실업률은 2.6%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표 1).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는 수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어, 베이비부머 경제활동 인구가 이탈될 경우 향후 노동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지수 변화 예측과 관련하여 삼성경제연구소(정호성 외,

7) 노인인구비율은 일본은 1996년, 한국은 2018년에 각각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U.S. Census Bureau, 「An Aging World: 2008」, 2009; 통계청, 2010 고령자 통계, 2010).

2010)는 2011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꾸준한 노동시장 재진입으로 인해 감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수는 2011년 382만명에서 2020년 310만명 수준으로 예측하였으며, 2011~2020년 취업자 수는 연평균 7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에코세대의 지속적인 유입 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시장의 과급효과는 과연 심각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주도한다. 향후 한국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생산인구라고 할 수 있는 25~64세 인구는 2020년대에 극점인 2,996만명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70년대 1,306만명으로 급감한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536만명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50년에 1,616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70년에는 1,326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70년대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5~64세 인구수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70년대에 이르면 고령화 등으로 대부분 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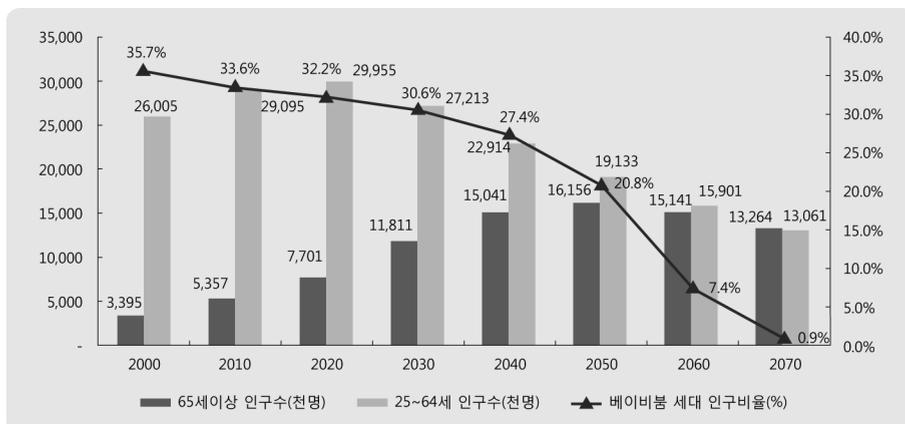
표 1.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현황(2010년)

(단위: 천명, %)

연령층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전체	24,749	23,831	920	15,843	61.0	3.7	58.7
15~19세	232	204	28	3,105	6.9	11.9	6.1
20~24세	1,293	1,171	122	1,351	48.9	9.5	44.3
25~29세	2,729	2,539	190	996	73.3	7.0	68.2
30~34세	2,834	2,715	119	1,009	73.7	4.2	70.6
35~39세	3,214	3,119	95	1,046	75.5	3.0	73.2
40~44세	3,366	3,278	88	835	80.1	2.6	78.0
45~49세	3,353	3,276	77	864	79.5	2.3	77.7
50~54세	2,974	2,905	70	943	75.9	2.3	74.2
55~59세	1,938	1,887	51	899	68.3	2.6	66.5
60~64세	1,228	1,187	41	984	55.5	3.4	53.7
65세 이상	1,588	1,550	39	3,811	29.4	2.4	28.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자료

그림 4. 베이비붐 세대 변화 추이(2000~2070년)



주: 기본 가정은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중위 가정)를 준용함. 통계청은 2050년 이후에 대해서는 추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2050~2070년까지는 2050년의 합계출산율(1.28명)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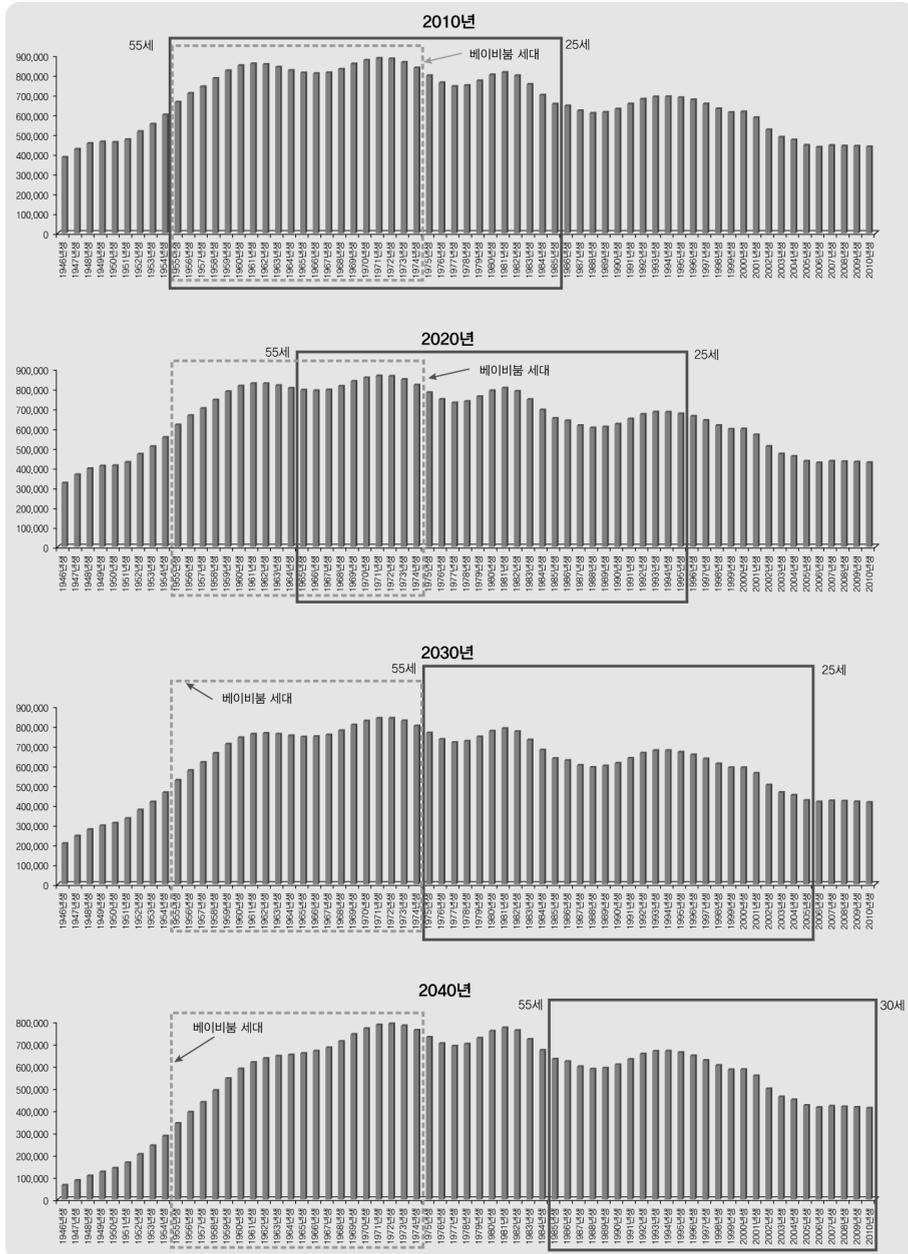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 쓰나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젊은 층이었을 때는 우리 인구에서 생산인구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이 되면 생산인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중심세력으로 전환된다. 요약하면 생산의 중심인구인 베이비붐 세대가 소비의 중심인구인 노년층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처럼 단기간 내에 베이비붐 세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어서 이들 세대의 은퇴에 따른 노동력 인구 감소도 느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감소는 2020년 이후 발생하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은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감소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상대적으로 장기간 유지되었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이후 곧 이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예코 세대가 연이어 따라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2030년대까지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대한 급격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청년,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의 평균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이들 계층의 존재는 노동시장의 노동력 감소시 버퍼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노동력 공급이 감소되면 이 공백을

그림 5. 베이비붐 세대 노동력 공급구조 변화(2010~2040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비경황 혹은 실업 상태에 존재하고 있던 여성, 청년, 중고령층이 채워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2040년대는 다르다. 이 시기에 이르면 저출산에 따른 인력감소의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2030년대 후반 경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 IV. 베이비붐 세대의 세대간 소득이전상의 독립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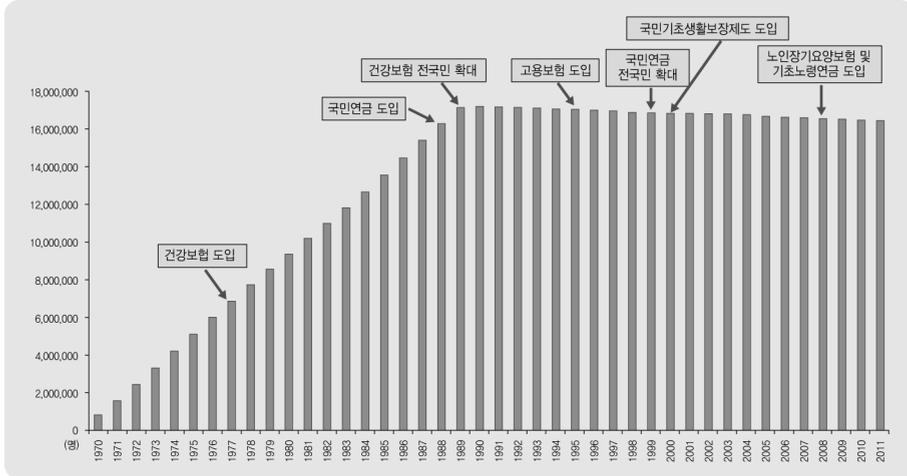
흔히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를 “낀 세대”라 지칭한다. 즉, 위로는 부모세대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녀세대를 양육하는 중간에 걸친 세대라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처럼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양육·교육·결혼시키기 위해 소비지출 중 부모생활비와 자녀교육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신, 자신을 위한 투자와 노후준비는 부족한 세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세대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혜택을 누렸으며, 국민연금제도 적용을 20년 이상 받아 연금의 급여수준도 이전 세대보다 높고, 부모부양에 있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으로 인해 부모 부양 환경이 개선되었다. 또한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전 세대보다는 위기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가 마련되었다. 즉, 이전 세대는 부모를 부양함에 있어 사회적인 지지 기제가 없었으나,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 세대는 최소 5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양육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출산억제정책으로 인해 자녀를 1~2명 정도 출산하여 자녀의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세대로서 단순히 자녀를 위해 희생한 세대라고 설명하기에는 다소 검증이 필요하다.

그림 6. 사회보험·보장제도 발전 및 연도별 베이비부머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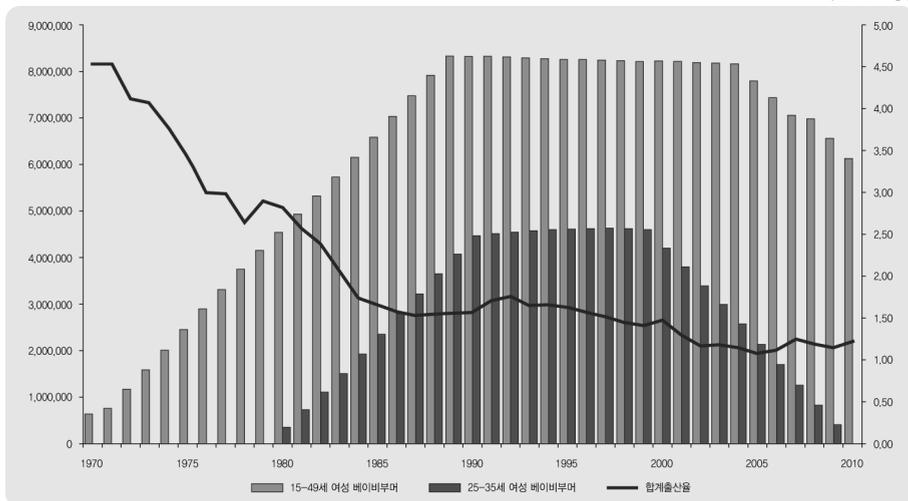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 1. 세대간 출생아수와 유년부양 부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수는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도별 합계출산율과 그 당시의 가임여성수를 비교하면 각 세대의 출생아수를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장기간 지속된다. 합계출산율의 추이는 보면 합계출산율이 2.0 이하로 하락한 시기는 1984년으로 이전 년도의 2.04에서 1.76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 1984년은 1935년생에서 1979년생이 가임여성인 시기이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중심 출산연령대에 모두 진입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가임여성기에 있는 시기 내내 1.5~1.7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자체가 인구재생 합계출산율 수준이 2.0을 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그림 7). 이렇게 볼 때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 세대 혹은 부모세대와 비교할 때 적은 자녀수를 가졌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도 그 이전세대보다 반드시 높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 양육으로 희생세대라는 것은 입증하기 쉽지 않다.

그림 7. 연도별 베이비붐 세대 가입여성수와 합계출산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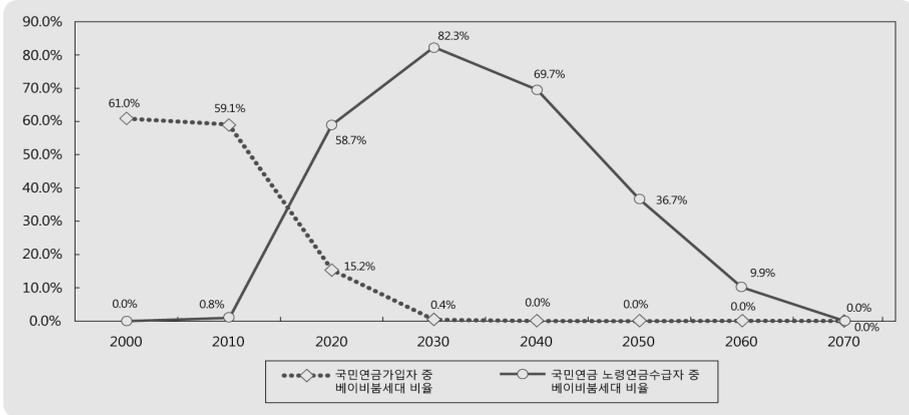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0년 출생잠정통계」 자료

## 2. 국민연금을 통한 세대 간 이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사회적 부양 부담도 대폭 커진다. 이들은 두꺼운 인구층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제도부양비가 급증하여 국민연금 수지의 적자를 초래하고 기금소진시점도 앞당긴다. 또한 은퇴 시에는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에 30년 이상 가입하게 되어, 수급자 수도 많지만 연금액 수준도 높아져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즉,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인 반면, 재정악화의 주범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건강보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시기는 2015년 이후로, 동 기간을 기점으로 고령인구 수는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연금을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수가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197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모두 은퇴하는 2050년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베이비붐 세대 비율은 급감하여 재정안정성이 불안해진다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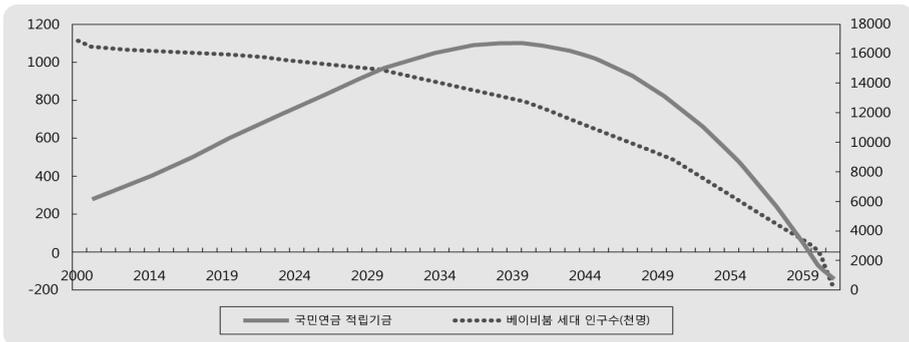
그림 8.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영향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통계자료

또한 이들이 고령자로 들어서면 보험급여 지출도 지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의 변화를 초래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사라지는 시점에 국민연금 기금도 동시에 바닥난다.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기금 증식을 주도한 세대에서 국민연금 기금 잠식을 주도하는 세대가 된다. 즉,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제도 성숙과 맞물려 근로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장기간 가입하여 초기 수급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수준이 높아져 세대 간 부양에 기초하는 있는 국민연금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과급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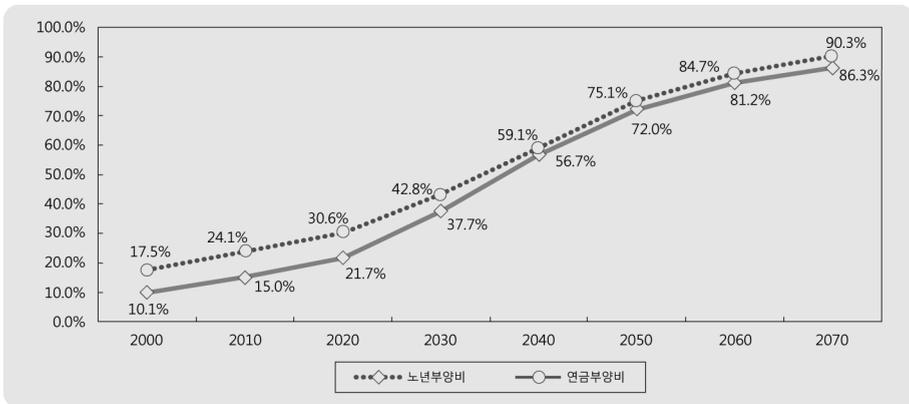
그림 9. 베이비붐 세대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통계자료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출산억제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 자녀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였다. 이로 인해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노후 대비가 부족한 세대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이들 자녀 세대가 과연 그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노년부양비와 연금부양비 모두 급증하게 된다.

그림 10. 노년부양비와 연금부양비 변화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통계자료

### 3. 건강보험의 급여와 보험료 차이에 따른 수혜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적립을 하는 국민연금보다 오히려 세대 간 비형평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보험이다. 특히, 인구부양비가 급격히 변동하는 시기에는 세대 간에 건강보험에 의한 소득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기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의 진료비가 고령기에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과 같이 인구고령화로 베이비붐 세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준다.

우선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편입되면서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고령자의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의료보호 등의 보건지출도 확대된다. 2007년 건강보험

지원 건강검진 결과, 55세 이상 연령층은 고혈압(24.4%), 당뇨(11.5%), 신장질환(12.2%)이 의심되는 수검자 비중이 55세 이하보다 1.8~2.7배 높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영석(2011)은 건강보험의 2009년 대비 2050년 GDP 대비 현물급여비는 2.71~18.81%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연도별 GDP 대비 건강보험지출 비중은 2020년 5.24~7.13%, 2050년 5.6~21.74%로 전망하였다<sup>8)</sup>. 2020년 건강보험 지출은 78~93조, 2050년에는 161~62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추계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020년 8.21~9.73%, 2050년 9.91~38.17%의 보험료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도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재원 비율은 2000년 45.5%에서 2008년 55.3%로 연평균 2.45%p씩 증가하고 있다(표 2). OECD 평균의 공공재원 비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추세로 보장성이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 약 16.7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여 2027년에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약 72.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신영석, 2011). 베이비붐 세대가 근로세대시기에는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였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노령기에 있는 동안에 높은 보험료 부담을 그 이후 세대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건강보험제도의 수혜계층이라 할 수 있다.

표 2.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변화 추이(1990~2008년)

구분	1990	1995	2000	2003	2005	2007	2008
지출액(조원)	2.9	5.9	13.1	20.8	25.8	34.1	36.9
국민의료비 대비 비중(%)	36.3	36.2	45.5	50.4	52.1	55.2	55.3
GDP 대비 비중(%)	1.52	1.44	2.17	2.71	2.98	3.50	3.59

주: 1) 공공재원: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산재보험)

2) OECD 평균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지출 비중: 2003년 72.0% → 2008년 72.5%

자료: 신영석(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인구 및 사회보험 재정 전망과 과제 발표자료,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2009년 대비 2050년의 GDP 대비 현물급여비 변화율에 2009년 GDP 대비 건강보험 전체지출비 비중 2.93%를 합한 수치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의 병수발 측면에서도 그 이전 세대 혹은 부모세대와 비교할 때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금전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비용을 경감 받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 4. 일반정부 예산을 통한 이전

조세부족으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와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세대가 부담할 조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담자의 대거 은퇴는 세수(소득세)의 감소를 초래하고, 역으로 각종 사회급여의 증가로 세출은 증가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정호성 외, 2010)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층에 근접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축소되면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전소득 의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2010~2018년에 걸쳐서 은퇴 연령인 55세를 맞이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출되고 소득도 점차 하락하게 된다. 2009년의 50세 이후 고용률은 50~54세의 경우 73.7%이나, 55~59세는 65.6%, 60~64세는 53.8%, 65세 이상은 29.7%로 급감하게 된다. 40세 이후 근로자 월 소득은 40~49세 224.7만원에서 50~59세 213.8만원으로, 60~69세 155.1만원으로 감소된다. 가계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65.2%에 달하는 상황에서 은퇴 연령을 지나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전소득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는 소득의 26.3%를 이전소득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계층은 정부재정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겠지만,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저소득계층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초노령연금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정부재정 부담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년기에 접어드는 2040년대와 2050년대에 재정부담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역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대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특수직역연금의 적자는 바로 정부재정부담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나, 현 상황에서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한 후에 개혁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정부부담 몫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고용률 및 소득이 하락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지출 부담도 증대된다. 2009년 현재 근로자 월 급여는 40~49세에는 224.7만원인데 반해 50~59세는 213.8만원, 60~69세는 155.1만원으로 연령대에 따라 점차 하락하게 된다. 2008년 현재 55세 이상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5.4%로 54세 이하(2.4%)에 비해 2.3배 높은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경미하지만, 이들이 고령층에 편입되는 2020년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202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연 0.5%p 상승하나 2020~2040년간 연 0.8%p 이상 상승하여 재정 부담의 급격한 확대가 우려된다. 2018년에는 55세 이상 인구가 29.5%, 65세 이상 인구가 14.3%였으나 2050년에는 각각 53.7%, 38.2%에 달하여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

결론적으로 세수의 중심 세력이 세출 중심 세력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율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을 활용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령자 빈곤을 해소하는데 정부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10~20세 연령층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2020~2040년에 노동의 주요 공급자가 되므로 이들의 1인당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노인계층으로 전환되는 2040년대와 2050년대는 베이비붐 세대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이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시기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인 2020년대 이전에 정부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재정수지의 균형을 통하여 국가부채의 증가를 막고 정부의 지출구조를 비용효율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V. 결론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문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의 문제,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이전상의 중립성 문제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선입견에 기초한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는 1955~1974년에 태어난 세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는 총인구의 34%인 1,650만명으로 20년간 장기간 지속된 거대 인구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규모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충격을 주는 시점은 2010년대 혹은 2020년대가 아니라 2030년대 이후 2040년대라는 점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존속하는 기간이 20년이라는 장기간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뒤를 잇기 때문이다. 그러나 204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에 따른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하여 2010년대부터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진입에 필요한 기간이 25년에서 3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0년대의 출생이는 2040년대가 되어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저보험료를 부담하고 고급여를 받는 세대로서 사회적 이전 측면에서 순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다. 더욱이 자녀의 수도 이전 세대에 비하여 적게 출산하여 양육의 부담이 그 전 세대 혹은 부모세대보다 높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를 부양할 시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정서적으로도 희생만 강요받은 세대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기에 접어들면, 국민연금 등 각종의 공적연금 지급과 건강보험 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부분적 적립방식을 채택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다수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적립기금의 고갈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겠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명멸하는 2050년대 이후에는 인구부양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비용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이 시급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동일한 근거에서 최근의 지출 증가 억제에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의 노인 세대에 비해서는 자립능력이 갖추어진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세대 내에서의 소득격차가 크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빈곤 세대가 다수 존

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등 비각출 연금급여 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되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정부부담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년기에 접어드는 2040년대에서는 재정적 압박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드는 2020년 이전에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출구조의 슬립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고찰한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지점, 세대간 소득이전상의 중립성 문제 등에 대한 분석은 보다 엄밀한 방법으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이 오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부동산시장, 금융시장, 상품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 역시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김용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및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국민연금, 사회보험, 사회보장이며, 저서로는 희망복지 포트폴리오(2010, 이미지북), 사회보험론(2008, 문영사) 등이 있다.

(E-mail: yhkim@kihasa.re.kr)

임성은은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입양,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인적·사회적 투자정책이며, 현재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E-mail: sungelim@kihasa.re.kr)

## 참고문헌

- 고용수, 이주연(2007). 일본 베이비붐 세대 퇴직의 본격화 및 그 영향. 해외경제정보, 2007-17, 한국경제영자총협회.
- 권현정, 박화옥(2008).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자본이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8(3), pp.535-553.
- 김용하(2010). 2010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이 시작된다. 신동아, 604, pp.446-452.
- 박덕배(2005). 베이비붐 세대(1955~1963), 노후대책 막막하다.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박사내, 삼규호(2010). 베이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대전: 통계개발원.
-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선우덕, 김동진, 송양민, 김나영, 이윤경, 유혜영(201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연희, 한경혜, 김호기, 김병후, 김혜영, 박경숙(2010). 위기의 베이비붐 세대, 사회적 해결책은 있는가?. 서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신영석(2011).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인구 및 사회보험 재정 전망과 과제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2.23, pp.25-53.
- 이철선(2009).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이철용, 윤상하(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서울: LG경제연구원.
-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김경래, 박보미, 유혜영, 이은진(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호성, 강성원, 문외술, 박준, 손민중, 이찬영, 이은미, 이민훈, 박변순(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정후식(2005). 일본 베이비붐 세대 퇴직의 영향과 정책대응. 서울: 한국은행.
- 황수경(2011).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동시장 파급효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출산 대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2011.3.30,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p.3-24.
- 대한상공회의소(2006).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연보. 대전: 통계청.
- \_\_\_\_\_(20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2010). 2010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Beinhocker, E. D., Farrell, D., Greenberg, E.(2008). *Why baby boomers will need to work longer. Economic Studies. The McKinsey Quarterly.*
- Bouvier L. F.(1980). America's baby boom generation: the fateful bulge. *Population Bulletin, 35(1)*, pp.1-36.
- Easterlin, R. A.(1962). *The American Baby Boom in Historical Perspectiv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Jackson, N.(2001). *The policy maker's guide to population ageing: Key concepts and issues.* Policy Research Paper No. 13,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 Macunovich, D. J.(2000). *The Baby Boomers.* Macmillan Encyclopedia of Aging. pp.1-13.
- Morgan, S. P.(2003). Baby Boom, post World War II. pp.73-77 in Demeny. P. and McNicoll. G.(eds), *Encyclopedia of Population, 1*,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 Pool, I.(2007). The baby boom in New Zealand and other wester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4(2)*, pp.141-161.
- Ryder, N. B.(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843-861.
- U.S. Census Bureau(2006). *Oldest Bay Boomers Turn 60!*. [http://www.census.gov/newsroom/releases/archives/facts\\_for\\_features\\_special\\_editions/cb06-ffse01-2.html](http://www.census.gov/newsroom/releases/archives/facts_for_features_special_editions/cb06-ffse01-2.html)에서 2011.6.19 인출.
- \_\_\_\_\_(2009). *An Aging World: 2008. International Population Report.* <http://www.census.gov/prod/2009pubs/p95-09-1.pdf>에서 2011.6.19 인출.
- Wikipedia. *Post-World War II baby boom.* [http://en.wikipedia.org/wiki/Post-World\\_War\\_II\\_baby\\_boom](http://en.wikipedia.org/wiki/Post-World_War_II_baby_boom)에서 2011.6.19 인출.
- WHO(2010). *Wold Health Report.*

## A Critical Review on Definition of the Baby-boom years, Labor market shocks,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fer

**Kim, Yong H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im, Sung Eu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The baby boom generation is a population cohort with a total fertility rate of 3.0 or more last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a sustained manner. Most studies have defined Korean baby boomers as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3. Considering both the fertility rates and the rapidly increased number of births, however,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define them as those born after the Korean War until 1974 as this definition has a more precise application in demographic and labor market analyses. By this definition, the baby boom generation would make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standing at 35%(16.5 million). Also, it is more likely than not that the point of time when retiring baby boomers begin to have impact on the labor market will be the 2030s, or 2040s, rather than the 2010s, or 2020s. This is because in the 2010s or 2020s,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among women, young adults, middle-aged or aged people can partly replace some of the retiring baby boomer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a population crisis in the 2040s, active policy measures to address low fertility rates should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the 2010s. Furthermore, baby boomers are more likely a generation that would benefit the most from social transfer such as the public pension than a sacrificing generation stuck in between other gene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t into operation active measures to bring about fiscal balance while baby boomers are still in the labor market.

---

**Keywords:** Baby Boom Generation,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ging, Public Pension, Retirement, 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fer, Labor Market